



과부의 헌금

요제프 프란츠 단하우저(Josef Franz Danhauser, 1805-1845)
1838, 캔버스에 유채, 97×127cm
레지덴츠 미술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입당 송 | 시편 88(87),3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
이소서.

제1독서 | 1열왕 17,10-16

화답 송 |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
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
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
리신다. ◎

제2독서 | 히브 9,24-28

복음환호송 |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다. ◎

복 음 | 마르 12,38-44<또는 12,41-44>

영성체송 |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랴.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
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예수님의 화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주교좌 기도 사제

종종 우리는 자신의 욕구나, 자신이 믿는 정의,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등등 그럴만한 다양한 이유로 화를 내지만, 자칫 잘못 화내는 습관을 들이면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화를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오복음에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며 강하게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눈먼 인도자’,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등 위선자라고 꾸짖으시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까지 하시며 열불을 토하십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선택받았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에게 그토록 화를 내셨을까요?

복음은 다른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신 동시에, 종종 분노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환전상을 내쫓으실 때 하느님의 진노를 보여 주셨습니다.(요한 2,13-15 참조) 또한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유하신 것에 대해 적대자들이 시비를 걸자,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루카 13,16)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화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당신을 지켜보는 이들을 ‘노

기 띤 얼굴로 둘러보시고’(마르 3,5 참조)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행위에 대항해 화를 내셨기에 그분께서 내신 화는 올바르고 정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화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하셨지,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마태 5,22)라고 말씀하신 것도, 적개심에서 비롯되어 살인까지 유발하는 화를 멀리하고 정당하게 내야 할 화와 그렇지 않은 화를 구분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셨습니다. 일종의 ‘친근감 있는 화’입니다. 가령, 그분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에게 당신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마태 16,23)고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유혹을 물리치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罅)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에페 4,26 참조) 될 수 있는 한 빨리 논쟁과 싸움을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죄가 되는 행동이나 적개심을 품은 화를 내버려 두어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인간관계를 망치기 쉽습니다. 화를 표현할 때는 늘 인내와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가 선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과부의 헌금

작가는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인데,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현대 디자인의 선구자라 불립니다. 이 작품도 부자들의 헌금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될만큼 부자를 그림의 중심에 두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갑니다. 하지만 작가는 부자가 아니라, 초라한 행색의 과부와 소경에게 동전을 건네는 어린아이의 순박한 행동을 통해 복음 말씀의 핵심인 진정한 헌금과 자선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수능을 축하하는 이유



정승제 안토니오 | 수학 강사

저는 수학을 사랑합니다! 제 고백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습니다. “우와, 수학이요? 수학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봐요. 전 수포자(수학은 포기한 자)였거든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학창 시절에 수포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과정’이 아니라 ‘답’이라는 결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고 답을 맞혔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몇 개를 맞혔는지에만 관심을 두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도 수학을 사랑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결과보다는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하나의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문제집 해설서에 나오는 방법대로 풀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설사 답이 틀렸다 해도 문제를 풀면서 정답이라는 이치를 찾기 위해 생각했고, 헤매어 봤고, 결정해 봤고 나만의 답을 내 봤으니, 이보다 더 큰 수확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수학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학은 신앙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라는 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해 보고, 헤매어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답을 맞혔는지 틀렸는지는 오직 하느님만 아신다는 게 수학과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일 겁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다가오면 저는 편지를 씁니다. 약 20년의 인생 중 가장 큰일을 겪을 저의 제자들에게 말이죠. 편지를 쓰는 이유는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 누군가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제게 해 주었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말입니다.

수능이 인생의 전부라 여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니

라고. 주변의 어른들이 대학만 가면 다 될 것처럼 말했다면 그것 또한 절대 아니라고. 수능 점수는 절대 인생의 행복과 같지 않다고. 그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배웠던 대로, 인생이라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그 어떤 방법도 틀린 것이 없음을 알면 좋겠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헤매어 보고, 결정해 보고 나만의 답을 내어 보다 보면, 인생의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수능 점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수능 결과가 어떻든 수능이 끝난 후,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인생 문제를 풀기 시작할 너희들의 찬란한 길을 응원하고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말해 주고 싶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하느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을 잘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수능이란 과정을 통해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수능이 끝났음이 아니라 알을 깨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그 시작을 축하합니다.

글구성 서희정 마리아작가

한
낱
말

하느님은 침묵의 친구이십니다.
나무, 꽃, 풀 등 자연이
침묵 가운데
어떻게 자라는지 보십시오.

성녀 마더 데레사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르 15,34)



이영제 요셉 신부 | 문화홍보국 부국장

밤새도록 최고 의회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예수님. 빌라도는 그가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고발을 당하였을 뿐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군중의 소요가 두려워 유다인들의 요구대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 기둥에 묶고 살점이 찢겨 뼈가 드러날 때까지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질에 그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살을 파고드는 가시들로 엮어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며,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마르 15,18)라고 하며 조롱합니다.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습니 다. 그분 앞에 거짚으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조롱합니다. 군사들의 비웃음에 사람들도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으며 모욕합니다. 며칠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그분께 온갖 칭송을 하길 마다 않던 모습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인간의 간교하고 간악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제 십자가 형틀을 메고 ‘해골 터’라는 뜻을 지닌 골고타 언덕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움푹 팬 이마 주름 사이로 피와 땀이 엉겨 붙습니 다. 머리를 짓누르며 날카롭게 살을 파고드는 가시관. 그 가시관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너무나도 양상한 예수님의 두 팔은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파르르 떨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찢어진 상처 위로 땀과 핏방울이 떨어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날카로운 비명만 내뿜습니 다. 그렇게 골고타에 다다르신 예수님을 군사들은 형틀에 눕히고 그분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은 후,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형틀을 똑바로 세웁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르 15,34) 사람들의 모욕과 비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버지께마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려웁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결코 억울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명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처참한 죽음마저 달게 받아들이신 사랑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백인대장은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르 15,39)

마르코는 어떠한 부연 설명 없이 담담히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 묘사합니다. 마치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여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라고,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와 그 극심한 고통과 죽음 너머에 숨겨진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고 우리를 초대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 죽음 앞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 주님의 기도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교회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 가르침 앞에서 가끔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시선을 느낄수록 유혹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유혹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기도’에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의구심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청원하는 것이라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빠지다(inducas)’라고 번역된 구절이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느님이 유혹으로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혹에 해당하는 명사 ‘페이라스모스(πειρασμός, 라틴어로 tentatio)’는 그 자체로 ‘악으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악에 점령된 상태의 인간을 방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 유럽권 교회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 2020년에 ‘우리를 유혹에 버려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문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도록 명하는 분으로 표현되었

고, (창세 22장 참조)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을 받도록 이끄는(마르 1,12-13 참조) 분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성장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 역시 ‘악에 빠뜨리는 유혹’이 아닌 ‘시험에 들게 하여,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얻게 하는 유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유혹에 버려두지 마소서.”라는 기도가 단지 하느님의 권능에 기대어 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원이라면, 이는 하느님의 본성을 온전히 담지 못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시험)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시험)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1코린 10,13)

하느님은 악이 지배하는 유혹에 인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악에 점령당하도록 유혹하는 이는 사탄이며, 그 악에 넘어가는 것은 인간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시험을 통해서라도 성장하기를 바라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느끼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도록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2027 서울 WYD, 주제 성구와 로고가 드디어 확정!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이하 WYD로 표기) 주제 성구와 로고가 지난 9월 24일(현지 시각) 바티칸에서 공개됐습니다. 주제 성구는 프란

치스코 교황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것으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입니다. 이 말씀은 2027년 서울에 모이게 될 전 세계 모든 청년들이 희망과 용기 안에서 자기 개방의 여정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로고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께서서는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에서 모티브를 얻어 서예 기법으로 로고를 디자인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의 두 획은 각각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데,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뤄짐을 뜻합니다. 사용된 색은 태극기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붉은색은 순교자들의 피를, 파란색은 젊은이들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노란 원은 로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W, Y, D가 적절히 배치되어 십자가와 함께 낱말 ‘서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개된 로고는 자생적으로 시작해 순교자들의 피로써 성장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소박하면서도 힘있는 디자인으로 표현합니다.

2027 서울 WYD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시작!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는 지난 리스본 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과 관련된 모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WYD는 2013년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2027 서울 WYD

의 공식 콘텐츠는 우리말,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를 포함한 22개 국가의 다양한 언어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7 서울 WYD의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되었습니다. 준비기도문과 역대 세계청년대회의 발자취는 물론, 묵주기도 10억단 봉헌 운동에 따른 봉헌 현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접속 가능한 큐알(QR) 코드 모음 ↓



젊은이 기획팀 & 준비 과정 봉사자 첫 모임

지난 9월, 명동 교구청에서 2027 서울 WYD 기획팀 첫 모임 및 세 차례에 걸친 준비과정 봉사자 양성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획팀’은 2027 서울 WYD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준비과정 봉사자’는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과정 중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하느님을 찾는 목마른 젊은이들



은성제 요셉 신부 |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서울A지IT) 소장

교구 대학생사목부에서 사목하던 때, 한창 ‘여혐(여성혐오)’, ‘남혐(남성혐오)’이라는 말이 유행하며 젠더 갈등이 크게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20대 사이에선 민감한 문제인데, 교회도 사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절규하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5월, 30대 ‘여혐자’가 20대 여성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살인을 저질렀던, 이른바 ‘강남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교회의 여성 사제 허용 문제를 비롯하여 여성 문제에 대해 묻는 가톨릭학생회 차원의 문의가 여러 차례 잇달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20대들에게 중요한 이슈라면 공적으로 시간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 10월, 자리를 마련하였고, 들어온 여러 질문을 거르지 않고, 행사 당일엔 메모로 받아서 강연자가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청년들의 고민과 의문을 듣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분을 섭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은총으로 당시 광주 대신학교에서 성서학을 가르치시던 김영선 수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락을 드린 후 무작정 전라도 광주로 찾아갔지만, 수녀님께서는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며 수락해 주셨습니다. 수녀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시던 시절 보스턴에서 여러 대학생, 청년 신자들과 신앙의 여러 문제를 함께 나누고, 또 젠더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경험이 있으셨답니다. 거기서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신앙에 대한 강한 목마

름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찾던 분이셨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이 되었고, 역시나 대학생인 우리 20대 자매들은 교회에서 느끼는 많은 아픔을 쏟아놓았습니다. 수녀님께서 그들의 고민에 대해, 주님의 폭 넓고도 넘치는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보이는 남성 중심주의 현상에 대해서 초대교회 박해 시절, 당시 여성들이 맡았던 큰 역할들을 예로 드시며, 젊은이들이 궁금해하던 것들을 교회사의 맥락 안에서 잘 풀어가고, 이들이 젠더 갈등으로만 이해했던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모임을 마무리하며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성들에게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장되어도, 모든 여성이 사제직에 부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야만 남성도 여성도 사제직을 받게 됩니다.”라고 아주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문제든 하느님이 중심이어야 함을 명확히 조명해 주셨습니다. 50명 정원인 좌석이 모자라서 서서 참석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은 주님을 목말라합니다! 그래서 연합합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외치게 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들이 교회의 주인공이자 현재임을 스스로 느끼게 합시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11월 10일)은 '평신도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이현수 신부	구의동 본당 부주임	대기
이민구 신부	해외유학	등촌3동 본당 부주임

2027 서울 WYD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개설

세계청년대회 역사와 준비기도문 등을 비롯한 각종 WYD 관련 정보는 물론,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에 따른 봉헌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18년 11월 12일 김휘중 요셉 신부(31세)
- 1952년 11월 12일 최문식 베드로 신부(71세)
- 1987년 11월 14일 조인환 베드로 신부(74세)
- 2002년 11월 16일 박병운 토마스 신부(75세)
- 2019년 11월 17일 오기오 요한크리스소스토모 신부(68세)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다섯 번째 '장영희(마리아) 교수' 기림 미사

장영희(마리아, 1952~2009) 교수는 어린 시절 1급 소아마비를 앓았고, 훗날 암투병이 더해지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삶을 비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누구보다도 기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영문학자로서도, 작가로서도, 그리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도 주어진 삶 안에서 선함을 잃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기쁨을 불어넣어 주었던 고(故) 장영희 마리아와 같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많은 분들을 기림 미사에 초대합니다.

때, 곳: 11월 16일(토)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 알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제24차 정기 학술 세미나

주제: '청소년과 생명' / 문의: 02)460-7623
때, 곳: 11월16일(토) 14시~18시, 수원교구청 지하 강당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봉사자 모집

활동기간: 2025년 1월~2026년 12월
내용: 교육 진행 전반(혼인교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때, 곳: 둘째주(토), 가톨릭회관(명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28일(목)까지 이메일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 '알림/공문' 참조)
문의: 02)727-2062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4년 세계자살유가족의 날 기념행사

대상: 자살유가족 및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행사: 1부 10시-미사 오승원 신부(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2부 11시-특강 정혜신 박사(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 동시 진행
때, 곳: 11월16일(토), 명동대성당 포스트홀
신청: 홈페이지(3079.or.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환경사목위원회

1) 제52회 가톨릭 에코포럼

때, 분: 11월13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 주제: 유엔의 기후협상과 종교의 역할
강사: 민정희 사무총장(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문의(신청방법): 환경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eco.catholic.or.kr>) 및 전화(02)727-2278, 2283) 접수

2) 제68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11월21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제: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78, 2283

제4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2025년 1월6일~17일(11박12일) / 지도: 김덕재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 데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미경 개인전: 1전시실
제24회 가톨릭사진가회 정기회원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6일(수)~14일(목)

2025학년도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미술계열 1학급, 여학생 13명
지원자격: 미술에 열정과 꿈이 있는 중학교 졸업예정(검정고시합격)자 / 원서접수: 11월11일~12월9일
문의: 070-8891-3831 교무실, 031)832-9988 행정실
홈페이지: www.flowerdaymorning.com

2025년 친구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친구약 성경 전체
때: 매주(월) 13시~15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2025 이스라엘 8일 피정: 11월12일~19일(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영성 아카데미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교육명: 상호의존관계에서의 회복, 거룩한 하느님 말씀 읽어보기, 기타배우기, 우울과 불안 강좌 등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과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11월12일(화) 매월 두번째(화) 13시30분~16시30분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2024 한국평단협 열린세미나 참가자 모집

주제: 청년에게 희망을 - 교회는 청년들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 회비 없음
때: 11월16일(토) 오후 2시~5시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 문의(사전접수): 02)777-2013 / 홈페이지(www.clak.or.kr) 온라인 접수
발제: 김남희 교수(가톨릭대), 김민직 교수(한국기술교육대), 조은솔, 서태원, 장소현 청년
토론: 오승언 신부(동성중학교), 경동현 박사(우리신학연구소), 류판동 원장(양업문화원)

민족화해위원회

1) 2024 한반도평화나눔포럼

주제: 평화를 향한 여정
내용: 한반도 갈등 해소를 위한 교회 인식 제고 및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 평화 토크콘서트
때, 곳: 11월15일(금) 오전 10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포스트홀 /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harepeace.net) 참조

2) 144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1월1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복본당': 평양교구 중강진 본당
문의: 02)727-2420

인준단체 알림

모임

11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11월28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위령 성월 피정(마리아학교) / 문의: 010-2724-4819

강사: 전원 신부 / 강의·미사, 회비 없음
 때, 곳: 11월18일(월) 9시30분~13시, 가톨릭회관 205호

효순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1월15일(금)~18일(월)·12월20일(금)~23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화장

11월12일	신교선 신부	11월19일	성시간·연도·위령미사
--------	--------	--------	-------------

2025년 이탈리아 순례(작은형제회)

내용: 로마, 아시시 및 프란치스코 성지
 문의: 010-9704-9495(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78차	3월19일(수)~31일(월) / 회비: 550만원
79차	6월10일(화)~22일(일) / 회비: 560만원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프로그램

1) 영신수련 대침묵 피정 / 문의(접수): 02)3276-7794

12월28일(토)~2025년 1월6일(월)	예수마음배움터
1월16일(목)~25일(토), 2월5일(수)~14일(금)	수원 말씀의 집

2) 영성연구소 무료 강좌 / 문의(접수): 02)3276-7799

희망의 순례자들 / 송봉모 신부
 때, 곳: 11월14일(목) 14시, 예수회센터 성당

피아골 해외·국내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이탈리아 일주 성지순례	2025년 5월14일~25일
홍성남 신부와 일본 도쿄	3월10일~14일
지리산 피아골 피정	2월25일~26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31차	11월15일(금)~23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32차	12월27일(금)~2025년 1월4일(토)	
제33차	1월24일(금)~2월1일(토)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대림 1일 피정(개인·소그룹)	12월5일(목), 12월19일(목)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2월20일~22일(연말 피정)
염마와 딸·아들(미혼) 피정	11월23일~24일
영신수련 8일 피정	2025년 1월3일~12일(9박10일)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12월6일 10시~15시30분
수행생을 위한 기도의 날	11월14일(목) 10시~15시
단식 피정	11월25일~29일(4박5일)
대침묵 피정(요한묵시록)	12월11일~14일(3박4일)
대림 피정	12월3일~12월10일·12월17일 매주(화) 10시~16시
송년 피정	12월31일~2025년 1월1일(1박2일)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때: 11월16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강사: 김완식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성모승천수도회 해외성지 순례

때, 곳: 2025년 7월25일(금)~30일(수)-몽골, 9월17일(수)~28일(일)-그리스·튀르키예
 문의: 010-2378-9104 / 사전 접수 필수

영성과 함께하는 몸 비유기(도미니코 수도회)

영육간의 건강을 효소로 다스리는 피정
 때, 곳: 12월6일~9일, 일만위 순교자 피정의 집(강화)
 회비: 42만원(효소비 5일분 포함) / 문의: 010-9363-7784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피정·강좌

담당: 정규환 신부(예수회)
 곳: 삼성동 / 문의: 010-3845-3045 (접수 중)

1) 기도 따라하기 하루 피정(845명)

내용: 강의, 기도, 질의응답 / 회비: 3만원(점심 포함)
 때: 매일 셋째주(수) 11월20일 10시~16시

2) 생활기도수련원 '내 삶의 디딤돌, 잠심' 10주 강좌

내용: 이나시오 영신수련 / 강의방법: 현장, Zoom, 녹화강의
 때: 12월6일 개강, 매주(금) 13시30분~16시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연말연시 12월30일~2025년 1월2일(한라산·해님·이·해돋이), 생태순례 12월7일~9일·12월13일~15일·3월15일~17일, 한라산 눈꽃산행 1월17일~19일·1월23일~25일·2월8일~10일·2월14일~16일·2월22일~24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3월1일~4일·3월9일~12일 /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 눈꽃산행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연말연시 12월29일~2025년 1월1일(한라산·해님·이·해돋이), 12월1일~3일·12월6일~8일·12월14일~16일·3월1일~3일, 한라산 포함 1월11일~13일·1월16일~18일·1월20일~22일·1월24일~26일·2월1일~3일·2월7일~9일·2월15일~17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성물·수제 목주 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템나 음악원(추천, 신촌)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년 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모집: 10월28일(월)~11월10일(일) / 면접: 11월22일(금)
 홈페이지: (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12월10일~24일 매주(화) 13시 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 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마르코(예수님 수의와 함께) 무료 강좌

때, 곳: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성 바오로 수도회(서울시 강북구 송중동) / 문의·강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가톨릭은(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 공부와 기도에 관심 있는 분 / 수시 접수
 내용: 구세사(김혜운 수녀), 지혜여정 시리즈 여러 강좌
 문의: 010-3092-1108(www.catholicon.co.kr) 생활성서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접수: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수시 모집
 신설강의, 수료이벤트, 다양한 무료 콘텐츠 제공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나'로부터 깨어나기-인문학 강좌

프랑스 사상이 조르주 바타유와의 만남
 때: 11월29일~12월20일 매주(금) 14시~16시(4회기)
 곳: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 www.ijscen.or.kr
 문의: 02)726-0700 전진상영성센터

예수회 수도생활체험학교-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노년을 보다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프로그램 / 대상: 60세 이상
 때, 곳: 12월9일~16일, 강원도 홍천
 회비: 1주 75만원, 2주 150만원 / 문의: 010-7451-9707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11월11일(월)~2025년 2월14일(금)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가톨릭성서모임·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그림형 성경통독-혼자서 읽기 어려운 성경, 함께 읽어보세요 / 대상: 성경통독을 원하는 분
 때: 민수기반 (월·화·수·일) 20시 비대면(12월경부터 시작), 요한복음서반 (월·화·수·일) 20시 비대면(12월경부터 시작) / 문의: 02)824-4363
 접수: 가톨릭성서모임 홈페이지(biblemove.com)

제25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cpbccamp.com)

미국	2025년 1월15일~2월4일(3주) / UCLA·UC버클리·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	2025년 1월11일~2월4일(4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가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모집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2279-0255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1곡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하는 남녀 평신도
11월30일까지 접수 / 010-5399-3371, 010-9572-8282

세인트프렘양상블 단원 모집 / 문의: 010-5446-7383

대상: 성음악에 관심있는 55세 미만 신자로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파트당 2명
연습: 매주(화) 19시30분, 원당성당(전철 3호선)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1월21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故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기일 미사

때, 곳: 11월12일(화) 14시, 미래사목연구소(주최,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글라셋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1월18일(월) 11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예수성심선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11월15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예수성심선교수도회 본원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접수: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소식-교구소식 '천주교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안내' 게시글 참조 / 문의: 031)850-1427

가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익산 성클라라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무지카사크라서를 합창단 40주년 대림성탄음악회

때, 곳: 12월6일(금) 20시, 목5동성당 / 전석 초대
지휘: 신기호 신부 / 문의: 010-9464-0680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뽀자비의수녀회)

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15주년 추모 음악회

때, 곳: 11월11일(월) 19시30분, 명동대성당
연주: 가톨릭합창단, 부산가톨릭합창단
무료 공연 / 정보: www.catholic-choir.or.kr
문의: 010-3211-5195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지곶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여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남자 어르신 케어 요양보호사 / 문의: 010-7171-9503

직원·봉사자 모집(성가복지병원)

분야: 영양과 조리사 0명 모집(2교대), 의료봉사자(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 / 문의: 02)940-1503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 문의: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재)2027서울WYD조직위 직원 모집

업무: 사무행정 및 봉사자 관리 1명
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이메일 문의
11월30일까지 이메일(wydseoul@seoul.catholic.kr)
접수 / 홈페이지(wydseoul.org) 공지 참조

강일성모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간호사, 조리원, 요양보호사 모집 / 02)426-9663
자세한 내용은 요양원 홈페이지 채용 안내 참조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치과위생사 2명 / 문의: 02)2634-1760
파트타임 지원도 가능 / 요셉의원 홈페이지
(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지원서 접수

창5동성당 방호원(계약직) 1명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소방·가스,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11월24일),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1월23일(토)까지 이메일(france@seoul.catholic.kr)
및 방문 접수 / 문의: 02)990-5684

문래동성당 사무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2678-0875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인 신자 1명(경력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1월17일(일)까지 이메일(johncho@seoul.catholic.kr) 및 우편(우 07295,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2 문래동성당 사무실) 접수 / 제출된 채용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청 재무회계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회계 관련 경력자 / 분야: 재무·회계 담당 1명(팀장급 / 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1월17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로 문의

서울대교구청 정의평화위원회 직원 모집

인원: 교구 사무원 1명(계약직) /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분, 교회의 사회적 역할 및 사회교리에 관심이 있는 분 / 업무: 교회 문헌 자료 작성 및 조사연구, 사회사목구 행정 업무 등
11월24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이메일로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경영관리국	재무회계
편집국	북디자인
프리에르 사업팀	웹·콘텐츠디자인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	전화 상담 후 결정	전화 상담 후 결정	010-5169-5494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이 안젤로 신부(성소부)
실례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6221-3520 유명일 신부
성 빈센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1월16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전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시간 검색

신간

기도의 비유

안토니오 피타 지음
성서와함께 | 132쪽 | 1만원
문의: 02)822-0125

예수님은 새로운 기도 방법을 발명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비유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백성들의 '일상'을 선택하셨다. 이 책에 소개된 기도예 관한 예수님의 비유들은 기도 방법에 대한 실질적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신간

기도를 그리다

배영길 지음
성서와함께 | 196쪽 | 1만9천원
문의: 02)822-0125

이 책은 예수님의 강생에서 공생할, 파스카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기도하고 싶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는 사람, 형식적이거나 틀에 박힌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 자체가 메말라 버린 사람들에게 이 책은 영적으로 새롭고도 성숙한 여정을 제시할 것이다.



연주회

마니피캇어린이합창단
제26회 정기연주회

입장권: 전석 1만원
때, 곳: 11월 21일(목) 오후 8시, 명동대성당
문의: 02)338-7830

어린이 합창단 '마니피캇'이 11월 21일(목) 8시, 명동대성당에서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마니피캇 출신들이 합창, 리코더, 해금 등의 악기로 다양한 무대를 만들고, 흥겨운 전통 민요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다음날 22일에는 청주교구 어린이 합창단 '안젤루스 도미니'와 청주 주교좌성당에서 교류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공연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입장권: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4만원(예술의전당) /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6만6천원, B석 4만4천원(성남아트센터))
문의: 031)738-149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2명 10% 할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아카펠라 소년합창단으로 교향 비오 12세에게 '평화의 사도'라는 별칭을 받은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이 12월 17일(화) 19시 30분(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12월 22일(주일) 17시(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두 차례에 걸쳐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을 진행한다.



연주회

제22회
카리타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입장권: 전석 1만원
때, 곳: 11월 12일(화) 19시 30분, 소월아트홀
문의: 010-2244-3602(단체관람 문의)

창단 25주년을 맞은 카리타스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1부는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현대음악 작곡가인 스티브 도브로고츠의 Mass(미사곡), 2부는 노르웨이 작곡자인 에드바르 그리그의 Five Love Songs를 비롯 아름다운 한국가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페라

오페라 <라보엠>

입장권: SUITE석 17만원,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공연시간: 11월 21일(목) 19시 30분, 11월 22일(금) 19시 30분, 11월 23일(토) 17시, 11월 24일(주일) 17시 / 문의: 02)399-1000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40% 할인

파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젊은 보헤미안 예술가들의 사랑과 낭만이 담긴 크리스마스의 감성을 담은 오페라 <라보엠>이 11월 21일(목)~24일(주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퀴엘리 자베스, 차이코프스키 등 국제콩쿠르 우승자 서선영, 황수미, 김태한, 정인호 등 최고의 출연진이 함께한다.